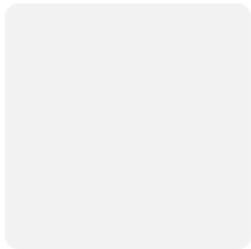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사회연대경제가 바라는 세상



김종걸 교수



🔄💰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1 경제성장의 질문들

왜 경제성장에 실패한 나라가
많을까?

경제성장을 해도 왜 가난과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는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개발
독재의 결과인가?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2 로스토의 성장단계론

한때 모든 나라들이 마치 동일한 레일을 달리는 열차들처럼
풍요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함

윌트 로스토

(Walt Whitman Rostow,
1916~2003)



-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명한 반공 사상가
-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음
- 존 F. 케네디와 린든 존슨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 고문으로 일했으며, 특히 그의 경제 발전 이론은 저개발국가들도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낙관론을 주도함
- '반공산당 선언'이라는 부제를 가진 저명한 저서 『경제 성장의 단계』(1960)를 집필함
- **인류의 경제적 성장과정의 진화 과정**을 주장함

전통사회

이륙 준비

이륙

성숙

고도 대중
소비 사회

3 절대빈곤의 양상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보고서 등으로 본 가난의 모습



- 현재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며, 5세 미만 어린이 1억 5,500만 명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음
- 18억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를 사용하며, 24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음
- 40%의 인구가 물 부족 상태에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더욱 늘어남
-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80%는 아무런 정화시설을 통하지 않은 채 강과 바다로 버려짐
- 개도국 어린이 중 5,700만 명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2%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가지 못함
-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30억 명의 사람들이 장작 및 석탄 사용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음
- 12억 명이 전화를, 23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음
- 8억 3,300만 명이 도시빈민가(슬럼)에 살며, 1억 9,200만 명은 실업 상태에 있고, 7억 8,300만 명은 일은 하는데 여전히 극빈층임
- 6,90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사망함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3 절대빈곤의 양상

■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 Smoky mountain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4 미국의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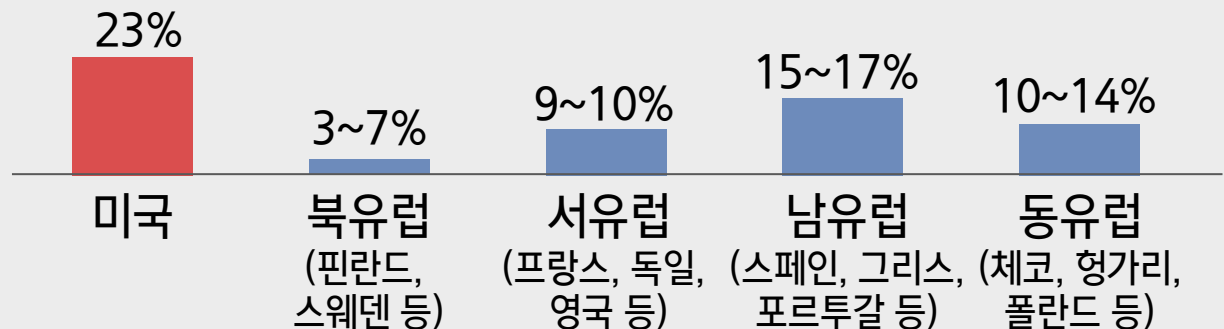
- 최빈곤층(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소득)
 - ▶ 빈곤층 내에서 가장 하위 그룹인 최빈곤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4인 가족 연소득 1만 2,800달러 미만이 1,940만 명에 달함

국립빈곤센터

- 미국에서 극빈층 가계는 1996~2011년 사이에 2배 증가함
- 2011년 하루 소득 2달러 미만인 극빈층은 150만 가구로, 280만 명의 어린이들이 극빈층에 해당함

2013년 유니세프 (UNICEF) 보고서

- 미국의 어린이 빈곤율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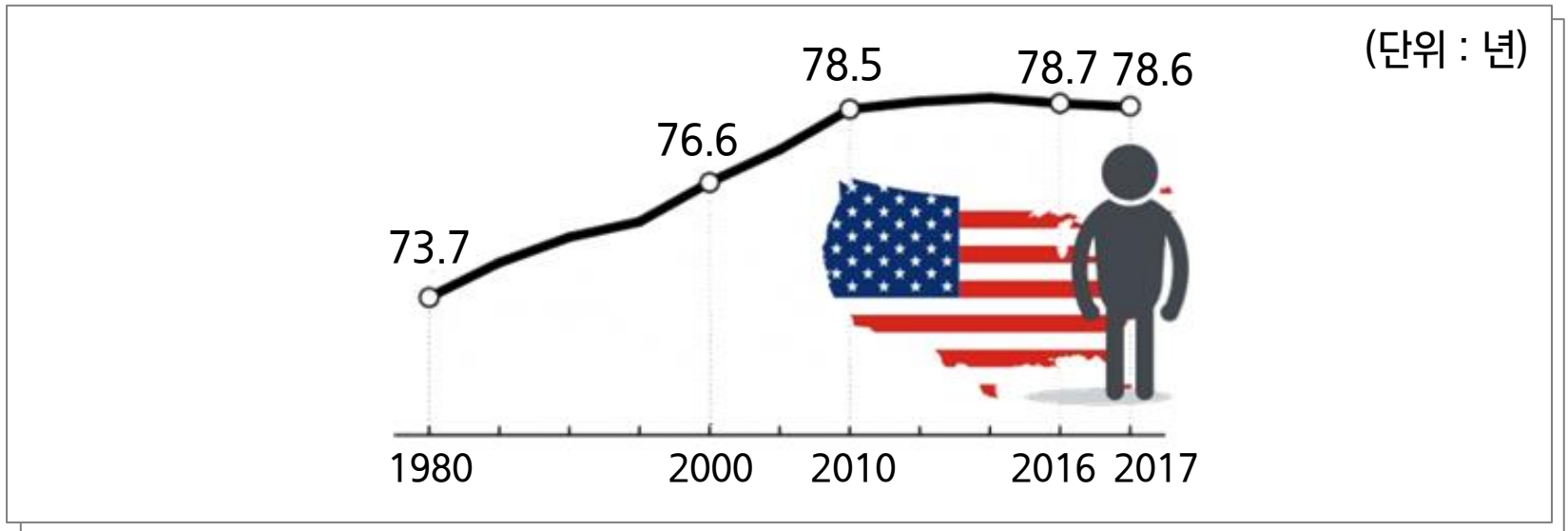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4 미국의 빈곤

■ 낮은 기대수명

- ▶ 미국의 기대수명은 78세로 심지어 쿠바보다도 짧으며 유아 사망률은 쿠바, 말레이시아보다 높음
- ▶ 미국의 흑인 사망률은 이들보다 훨씬 가난한 인도(조사 대상은 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케랄라[Kerala]) 사람들보다 더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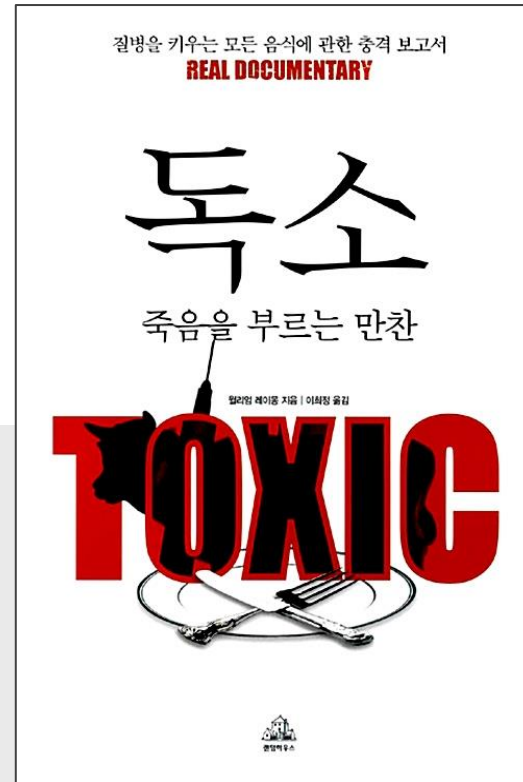
미국인 평균수명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4 미국의 빈곤

2007년에 개봉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는 미국 빈민층의 의료상황을 고발함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4 미국의 빈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왜 건강이 나쁜지를 면밀히 추적해온 프랑스 시사 전문 기자 윌리엄 레이몽(William Reymond)의 보고서는 충격적임

- ▶ 미국 남부의 한 가난한 마을의 트랜스 지방투성이인 식탁은 ‘독소’를 먹고 사는 빈민층의 식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윌리엄 레이몽의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 중

미국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시티는 스타카운티의 대표 도시이며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한다. 시내에는 맥도날드, 데리어퀸, 버거킹, 왓어버거, 웬디스, 피자헛 등 패스트푸드점으로 꽉 차 있다.

메뉴 한 가지를 사면 빅 사이즈 콜라가 공짜이고, 그것도 아침에는 1+1 서비스도 제공된다. 5달러가 채 안 되는 돈으로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습관으로 리오그란데시티의 성인 인구 절반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 도시의 2,391명 어린이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미래의 당뇨병 환자는 무려 1,172명에 달한다.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5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

역 U자 가설

경제성장단계의 초기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점차 평등한 경제로 이행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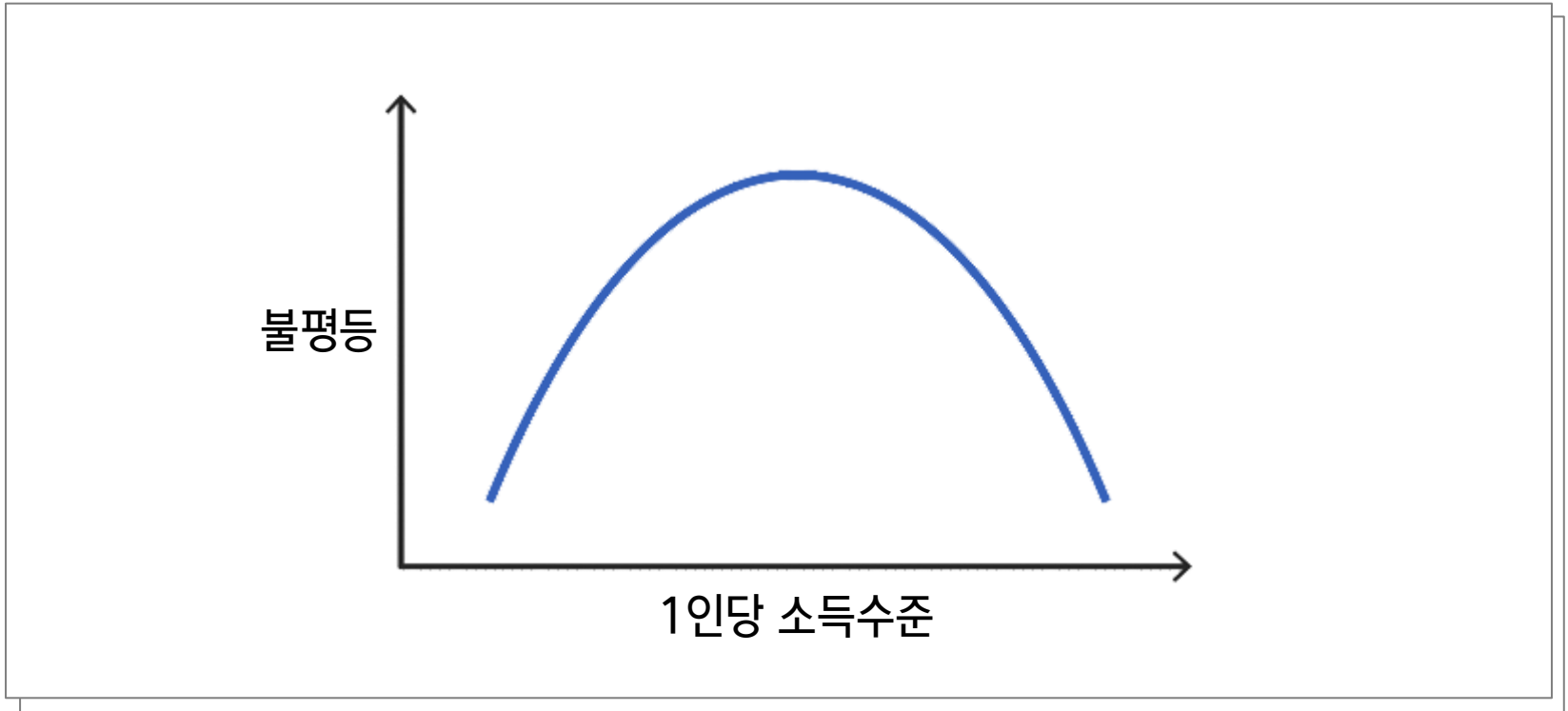
- ▶ 개도국의 경우 노동시장에는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며, 그 과잉노동력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임금은 항상 낮은 단계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식함
 - 루이스(Arthur Lewis)가 무한 탄력적 노동공급곡선이라고 일컬었던 상황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임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함
- ▶ 참고 지내다 보면 경제적 불평등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논리, 그러한 낙관론이 1960년대라는 세계경제 팽창기와 어울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됨

BUT 불평등과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음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5 쿠즈네츠의 역 U자 가설

■ 쿠즈네츠의 곡선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하에서 경제적 부는 점차 소수에게 집중되며 부의 상속을 통해 상위 1%가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로 되어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림

- ▶ 1970년대에 15~20%였던 선진국의 자본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자본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지금은 25~30%로 증가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

현대적 성장의 특징이나 시장경제 법칙과 같은 어떤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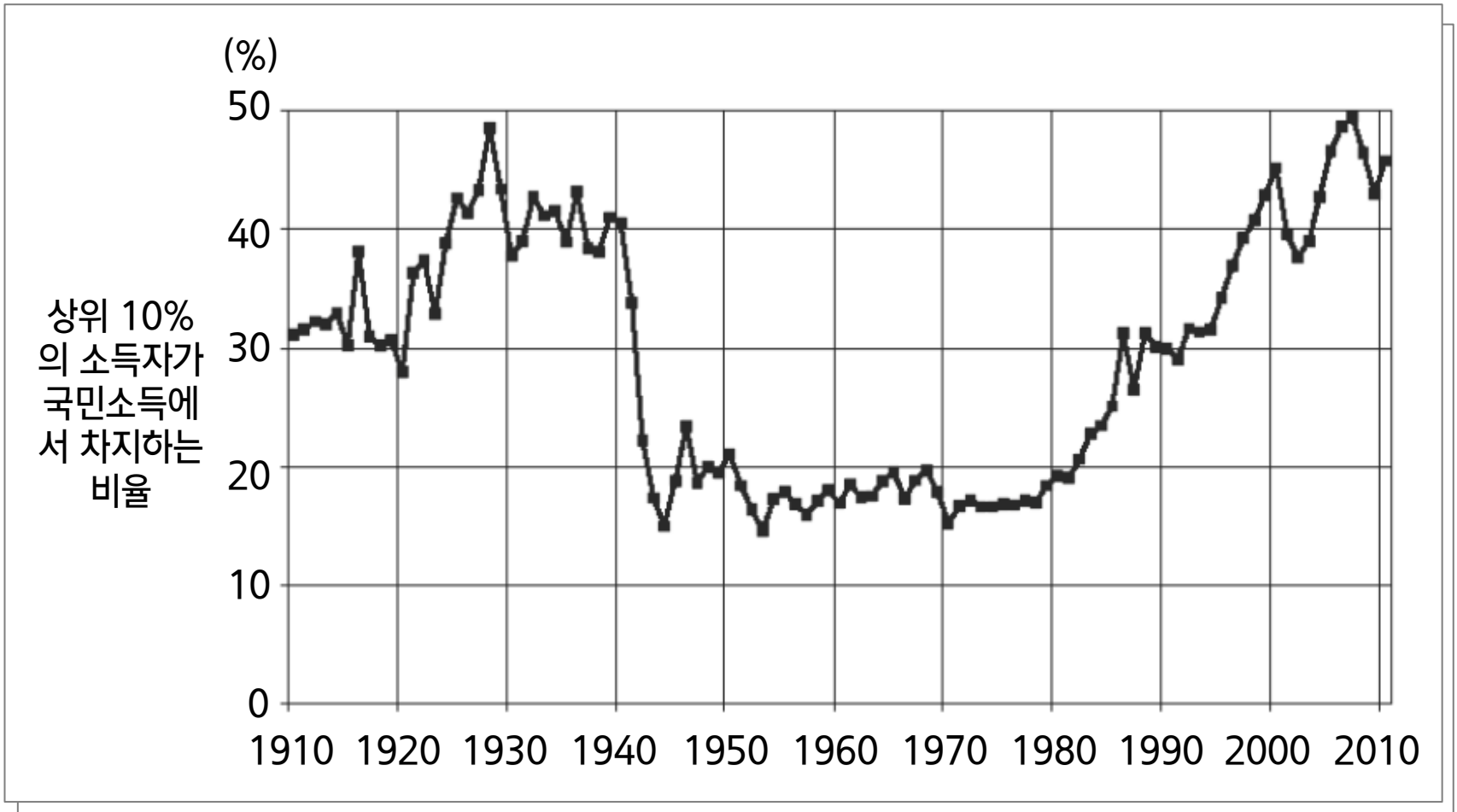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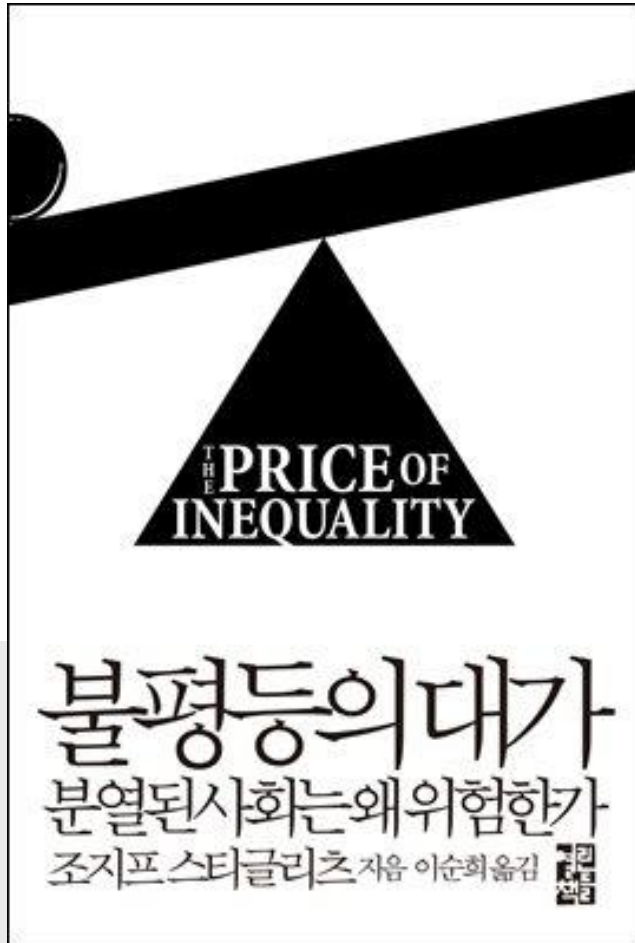
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미국의 소득 불평등(191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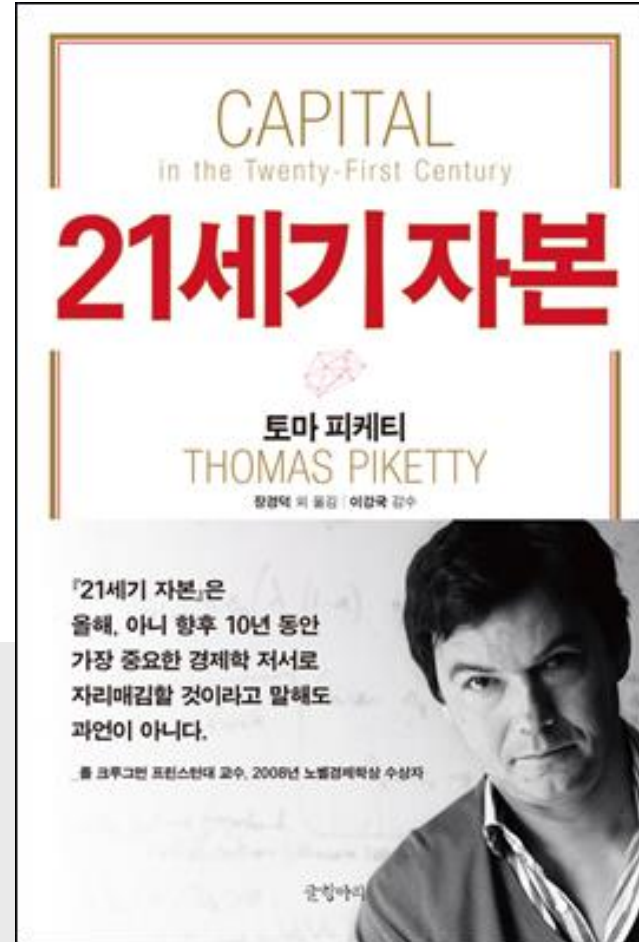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출처20>



<출처21>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7 해결되지 않은 불평등

많은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통과역이라고 생각함

아서 루이스(Arthur Lewis)

무한 탄력적 노동공급곡선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

역(逆) U자 가설

BUT 그 모든 약속은 깨져 버림

경제적 불평등은 마치 역사법칙처럼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복지 및 세금 관련의 제도)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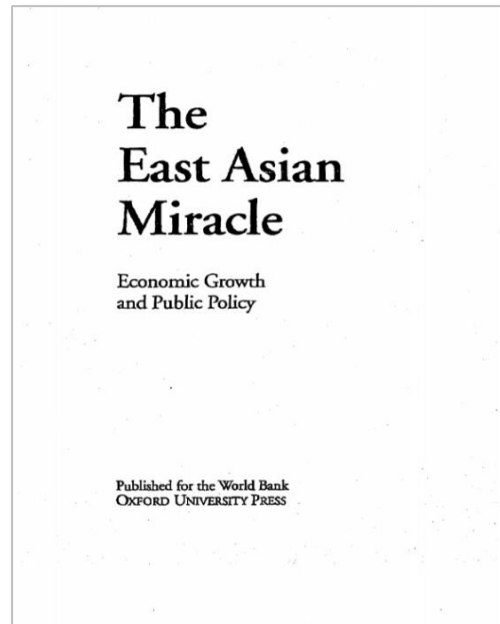
8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인

-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
 - ▶ 8개 국가를 HPAEs(Highly Performing Asian Economies)로 명명

일본

4마리의 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의 신흥공업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8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인

■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

“

만약 성장이 무작위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성공이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은 약 1만분의 1의 확률

”

- ▶ 이들 국가의 산업정책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지 않게 그것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림
 -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지원의 성과를 차별화함(contest based)
 - 그것을 잘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자(fair umpire), 즉 우수한 관료 시스템과 민관 협력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잘 갖추
- ➔ 동아시아의 정부 개입 방식을 **시장친화적 접근 방식(market friendly approach)**이라고까지 명명함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8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인

일부에서는 권위주의적 개발독재(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신화'를 말함

BUT 정책적으로 말한다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경쟁의 개방성

국제시장의 활용

수준 높은 문자해독
능력과 학교 교육

성공적인 토지개혁

투자 유인을 위한
공공 지원

수출과 공업화

➔ 위의 정책들은 '독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

💡 수많은 사람들이 굶은 땀을 흘리고 한 푼 두 푼씩 모은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키고, 구로공단과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뜨거운 열망과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

1. 경제성장 이론의 붕괴

8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인

아마르티아 센은 한 국제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아마르티아 센
(Amartya Kumar Sen)



“비민주적인 시스템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싱가포르의 지도자이자 초대 총리였던 리관유가 주창했기 때문에 ‘리(Lee) 가설’이라고 불립니다. …… (중략) …… 하지만 ‘리 가설’은 광범위하게 입수 가능한 모든 자료에 기초한 일반 통계 검증보다는, 제한적으로 선택된 정보에서 도출된 단발적 경험주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 (중략) ……

실제로 권위주의 통치와 정치적 권리, 시민권리의 억압이 경제 발전에 유익하다는 가설을 확인시켜주는 일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중략) ……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이 사실은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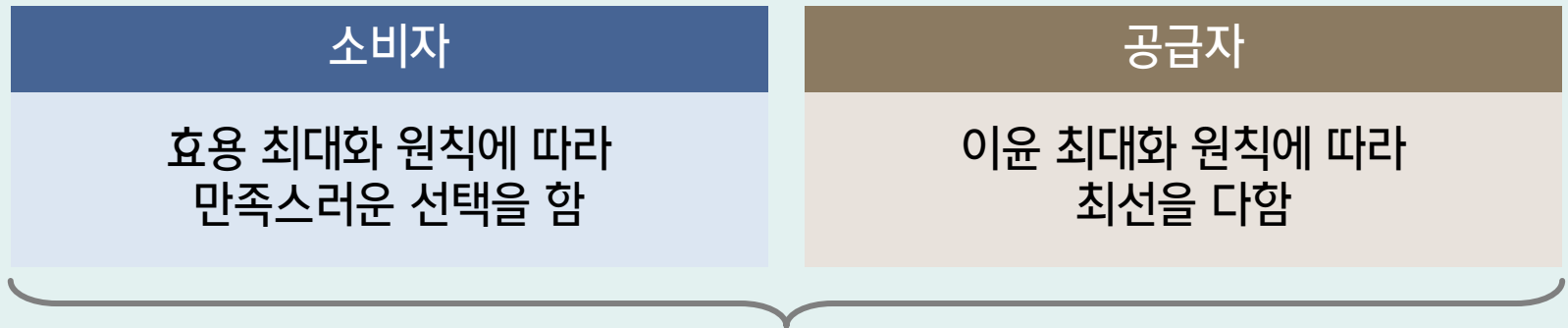
①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1 시장이라는 이상(偶像)

신고전파 경제학

- 현대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옹호는 거의 '신앙'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음
-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란 수요자와 생산자의 '합리적'인 '최선'의 '계산'과 '선택'이 반영된 결과임



모든 행위가 다 같이 만족되는 점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으로 해설됨

- 이들이 그려놓은 논리의 세계 속에서는 불평등도 불만도 들어갈 여지가 없음
- 현실에서 가난과 빈부 격차, 노동과 자본 간의 분배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채, 시장경제의 아름다움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의도된 '무식'이라 할 수 있음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2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偶像)

인간이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성향만을 갖는다는 가정(호모 에코노미쿠스)



- 인간 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만약 사람이 단순히 계산적이며 이기적이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름
 - ✓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가정 하에서 시장경제의 이득을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을 흔히 신고전파 경제학자라고 부름
-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전면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동원리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정식화한 것에 불과함
- 그런데도 이기적 동기에 의한 행동 이외의 것을 경제분석에서 제외시켜 갔던 폐해는 너무나 큼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2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偶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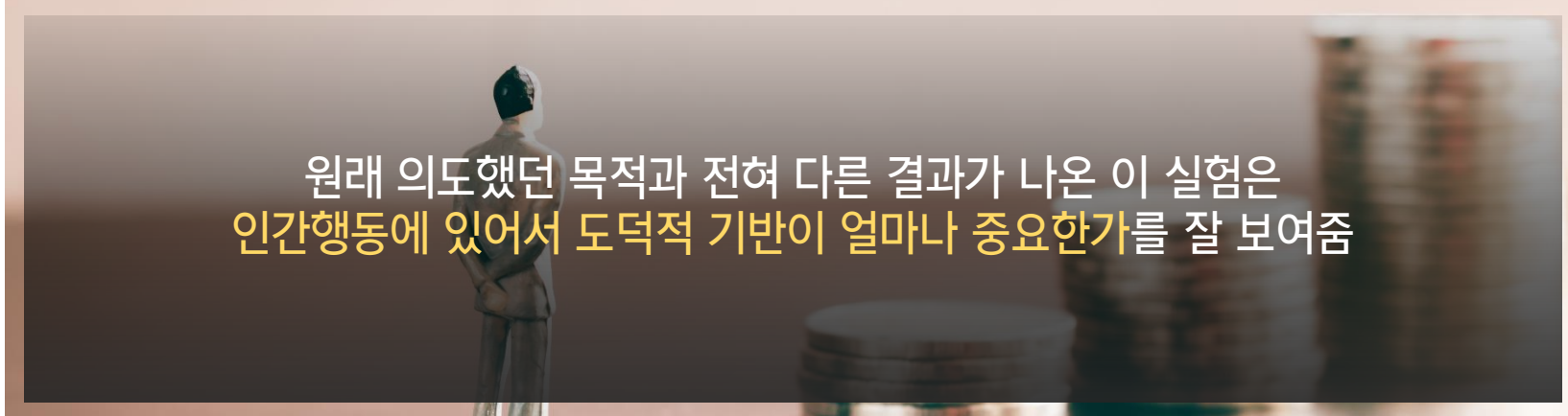
■ 이스라엘 하이파(Haifa)에서 진행되었던 재미있는 실험

실험 내용

- 보육원에 아이를 늦게 찾으러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한 효과 분석

실험 결과

-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음
- ✓ 벌금이 없는 곳보다 벌금을 부과한 보육원에서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가 오히려 2배 늘어남
- 부모들은 아이들을 늦게 찾으러 오는 ‘미안함’을 ‘돈’으로 사버린 것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 실험은
인간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줌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3 이스털린 역설

경제가 성장한다고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집합이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함

리처드 이스털린 (Richard Easterlin)



- 경제 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강조한 학자
- ✓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각종 사회 서베이를 활용해 주관적 만족도와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함
- ✓ 한 나라 안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경향은 있으나,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행복하다는 법칙은 없다고 결론을 내림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4 GNH(Gross National Happiness)

많은 나라가 국민행복을 기준으로
국가통계를 재정비해야 함을 천명하기 시작



부탄같이 국민총행복(GNH)을 기준으로
국가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재구성하는 나라도 생겨남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4 GNH(Gross National Happiness)

■ GNH의 네 기둥과 아홉 영역

기둥 1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 발전	생활수준	표준 영역
		교육	
		건강	
기둥 2	문화의 보전과 증진	문화적 다양성 및 복원력	혁신 영역
		공동체 활력	
		심리적 웰빙	
		시간 사용	신규 영역
기둥 3	생태계 보존	생태적 다양성 및 복원력	
기둥 4	굿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5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보고서(2009년)

GDP 중심 사고방식에 가장 포괄적 비판을 가함

위원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고문

아마르티아 센

사무총장

파리정치대학 교수이자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의 소장이었던
장 폴 피투시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5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사람의 행복이란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며, 물질적 생활수준(소득, 소비, 재산) 이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역설

12가지 권고사항

1 생산보다는 개개인(가계)의 소비에 주목해야

권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해야 함• 감가상각, 국제적 소득의 흐름, 생산가격과 소비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생산이 증가해도 소득은 감소할 수 있음
권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과 소비는 가계의 입장에서 재정리해야 함• 정부로 이전되는 세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가계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이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5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12가지 권고사항

2 개인(국가)의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까지도 고려해야

권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포괄적인 계정을 만들어야 함
권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로 전달되는 모든 자산, 즉 천연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자본, 물리적 자본 등을 포함하여 그 보존 상태나 증가 상황을 동시에 알려주어야 함

3 비시장거래에 대한 파악도 중요

권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시장거래의 파악은 중요하며, 가계가 자체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서비스는 공식 소득이나 생산지표에는 인정되지 않음가계 활동에 대한 포괄적 계정을 만들어 국민소득 계정의 보조 축으로 활용해야 함
------	----------------------------------------------------------------------------------------------------------------------------------------------------------------------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5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12가지 권고사항

4 행복이란 다양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

권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 파악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행복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모두 중요함
권고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함
권고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은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해야 함
권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들을 통계조사에 포함시켜야 함

2. 호모에코노미쿠스라는 이상

5 스티글리츠-센-피투시 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서문을 쓴
당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의 말은 강력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Richard Easterlin)



“

프랑스는 이 보고서의 결론을 모든 국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 · 사회 · 환경질서 구성과 관련한 회의와 논의의 장에 이 보고서의 논의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프랑스는 모든 국제기구들이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들의 통계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유럽 국가들에게 그 권고를 따라 솔선수범할 것을 제안할 것이며, 당연히 프랑스가 먼저 통계 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공무원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으로 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다.

”



① 인류의 지적 상승으로부터의 가르침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1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을 위한 윤리와 정치

아리스토텔레스



- 스승 플라톤과는 달리 세속적 삶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
- 건강, 재산, 명예, 사랑 등이 행복이라고 하는 ‘통속적’인 견해가 “일부분 혹은 대부분 옳다”라고 그는 강조.
- 정치적 삶, 도덕적 삶, 지적 삶에 대해서 강조.
- 『니코마코스윤리학』은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부단히 중용의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 『정치학』에서는 그 행복이 보장되기 위한 정치체계를 논의.
- 결론은 엘리트와 민중 간의 협업(혼합정체)이 잘 작동되어야 하며, 체제안정을 위해 중산층이 잘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
- 윤리학이나 정치학이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양극단이 아니라 중용.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zōion politikon)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그런 자를 호메로스는 “친족도 없고 법률도 없고 가정도 없는 자”라고 비난한다. 본성이 그러한 자는 전쟁광이며, 장기판에서 혼자 앞서 나간 말처럼 독불장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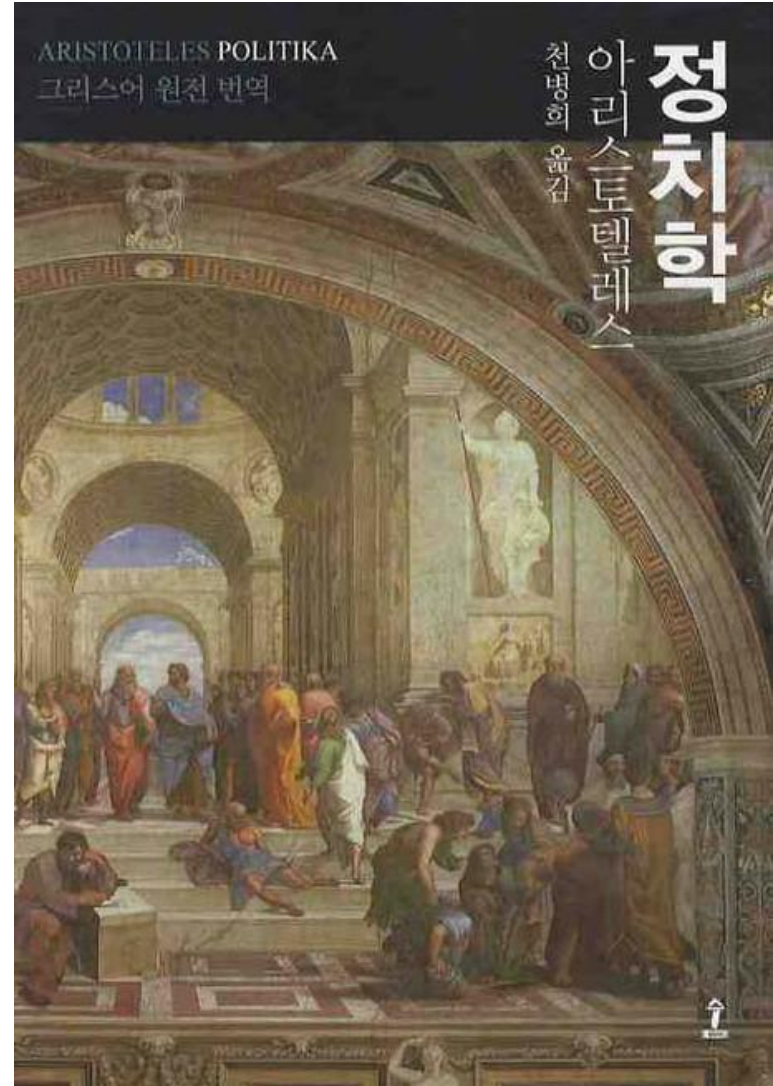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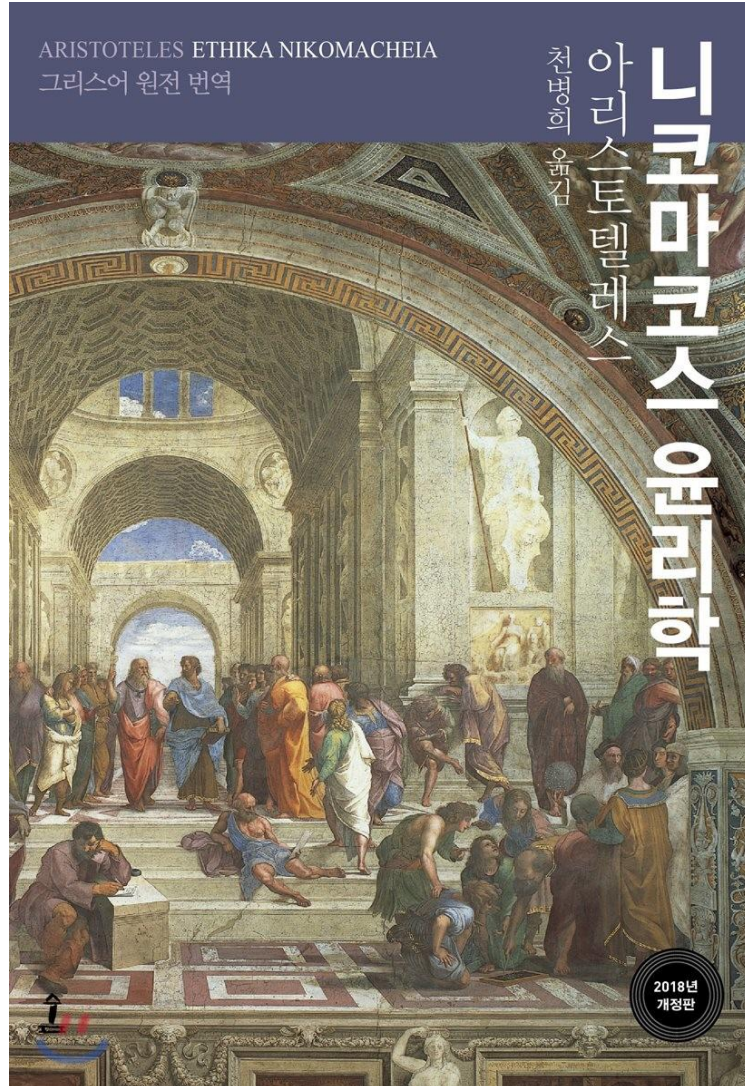
.....(중략).....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웃고 그림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성되는 것이다.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1 아리스토텔레스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2 애덤 스미스

■ 도덕감정에 기반한 이기심

공감

- 스미스에게 있어서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sympathy)은 도덕감정의 원천임
 - ✓ 「도덕감정론」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그것은 ‘증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무도한 폭도(暴徒)와 가장 냉혹한 범죄자들에게도’ 발견되는 공통의 속성

양심

- 공감과 함께 스미스가 강조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양심의 존재
 - ✓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공정히 바라보는 ‘공평한 구경꾼(impartial spectator)’이 있다는 것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서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공감과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해서 견제되고 보완되는 것

2 애덤 스미스

■ 인간의 덕성과 경제의 동시발전



- 가난에서 벗어나면서도 인간 고유의 덕성을 잘 발전하는 것이 행복.
- 애덤 스미스에게는 그것이 바로 공정한 시장경제.
- 인간의 본성(동감력)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를 논증한 작업이 그의 유명한 『도덕감정론』.
- 인간의 덕성과 경제가 함께 발전하려면 공정한 시장경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 『국부론』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2 애덤 스미스

<p>비봉고전선 애덤 스미스</p> <h1>도덕감정론</h1> <p><개역판> 박세일 · 민경국공역</p>  <p>“〈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가 자기 묘비명으로 쓴 구절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종교, 예술 등 모든 학문분야의 전제조건이다. 본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가 앙립할 수 있는 도덕적, 철학적 원리를 밝힌 고전(古典) 중의 고전이다.</p> <p>비봉출판사</p>	<p>경제학고전선 애덤 스미스</p> <h1>국부론 (상)</h1> <p><개역판> 김수행역</p>  <p>한 나라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이유와 모든 경제문제의 본질을 밝힌 불후의 경제학 명저! 사회과학 최고의 고전!! 「국부론」 번역의 결정판!!!</p> <p>비봉출판사</p>
----------------------------------------------------------------------------------------------------------------------------------------------------------------------------------------------------------------------------------------------------------------------------------------------------------------------------------------------------------------------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3 존 스튜어트 밀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 ▶ 밀은 『자유론』에서 인간을 ‘진보하는 존재(progressive being)로 전제한 뒤, 이런 인간의 항구적 이익(permanent interests)에 도움이 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설정함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

나는 효용이 모든 윤리적 문제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효용은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항구적 이익에 기반을 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이어야 한다.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3 존 스튜어트 밀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 ▶ 밀에게 있어서의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란 인간성(humanity)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정부의 탁월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됨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1806~1873)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즉 그 구성원들의 여러 바람직한 자질, 특히 도덕적 · 지적 · 능동적(active) 자질을 얼마나 잘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정부가 다른 일도 모두 잘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자질을 구비하고 있을 때 정부가 구체적인 업무를 잘 수행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3 존 스튜어트 밀

- 자유의 기본원칙(One Very Simple Principle): ‘자유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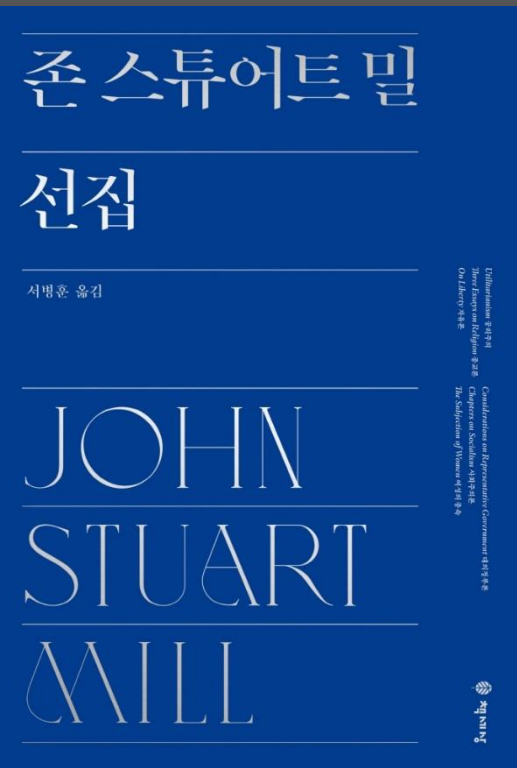
나는 이 책에서 자유에 관한 아주 간단명료한 단 하나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이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원리가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미성년자, 미개사회(식민지) 제외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3 존 스튜어트 밀과 인간의 개별성/사회성

■ 개별성(Individuality) 관련 : ‘공리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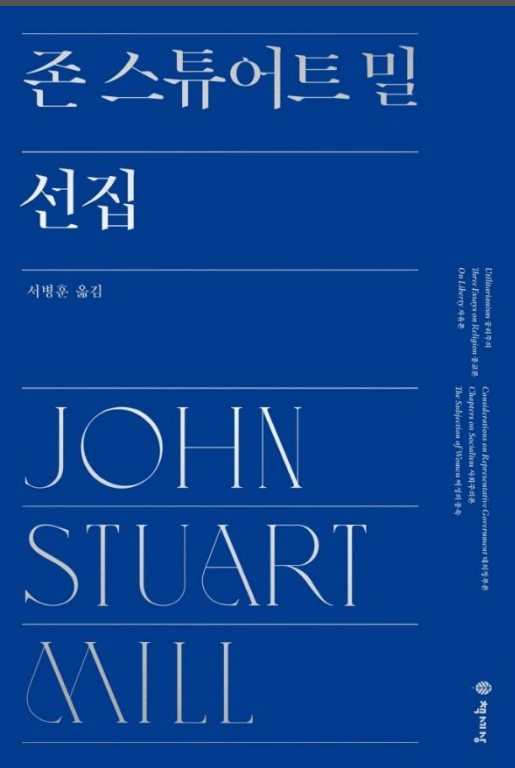
“

만일 사람이 세상 또는 주변 환경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간다면, 원숭이의 흉내 내는 능력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본인의 타고난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눈을 서야 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이성애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아야 하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런저런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자신의 신중한 선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와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 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3 존 스튜어트 밀과 인간의 개별성/사회성

■ 사회성(Sociality) 관련 : ‘공리주의’

“

어떤 사람이 외형적인 조건은 상당히 괜찮은데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삶 자체가 그다지 풍요롭지 않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애정을 쏟을 일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을 흥분시킬 만한 것이 훨씬 적다.

...우리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이기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신 교양의 부족이다.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올바르게 양육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애정을 쏟고 공공선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지성인이라면 그런 싸움의 과정에서 고상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



3. 인류의 지적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

4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198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
(Amartya Kumar Sen,
1933년~)



“

여기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발전을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발전에 대한 협소한 관점과 대비된다. 그 관점은 발전을 GNP 성장이나 개인소득의 증대, 혹은 산업화, 기술적 진보, 사회의 근대화 등과 동일시한다. …… (중략) …… 하지만 자유란 다른 요소에도 의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제도(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건 체계)나 정치적·시민적 권리(예를 들어 공적 논의나 감사활동에 참가할 자유) 등이 포함된다. …… (중략) …… 만일 자유가 발전을 통해 촉진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 최상위 목표(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중략) …… 발전을 위해서는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가난,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 구조적인 사회적 박탈, 공공시설의 방치, 억압적인 정부에 의한 과도한 간섭과 불관용이 바로 그것이다.

”



① \$ 행복한 나라의 경제 사회 전략

4. 행복한 나라의 경제사회 전략

1 자유의 중요성과 의미

-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



자유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the primary end), 발전의 핵심적 수단(principal means of development)이기 때문에 중요함

예 ▶ 민주적 절차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

자유는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한사람도 뒤쳐짐이 없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4. 행복한 나라의 경제사회전략

2 행복한 나라의 8대 정책기조

1 사상과 행동이 자유로운 나라

- 인간은 자유롭게 커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
- 자유만이 인간의 진보와 도덕의 내면화, 절대권력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2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번영의 기반
- 단지 경제적 자유는 경쟁이 공정하고 분배가 공평해야 가능.

3 기회와 결과가 평등한 나라

- 기회의 평등은 당연. 하지만 선천적 능력차이 등 인간은 불평등.
- John Rawls '정의론'에서 전개한 '무지의 베일' 논리로 사고실험 하면 '최소수혜자의 최우선 배분의 원칙'으로 복지를 실행해야.

4 산업조직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나라

- 대기업/중소기업, 영리/비영리/사회연대경제기업 등의 다양성 유지
- 다양성은 경제 사회 진보의 기반

4. 행복한 나라의 경제사회전략

2 행복한 나라의 8대 정책기조

5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나라

- Global Compact(165개국, 15,000기업 참여), ISO26000
- 기업의 ESG 강조

6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이 잘 되는 나라

- 중앙정부의 행정규제는 기재부 파악 중대분류에서도 1,000이상.
-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가야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복한 나라의 전제

7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가족-시민사회-지방정부-중앙정부로 해결의 주체 설정
- 홍성군 홍동면/장곡면 이야기

8 시민 덕성과 사회적 신뢰가 잘 발전되는 나라

- 실험경제학의 결과들
- 대부분 많은 사람은 협력을 원하나 상대방이 배신할까 두려운 것. 서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긴 시간에 걸친 협력게임의 결과.

4. 행복한 나라의 경제사회전략

3 행복한 나라의 10대 법률 제정/개정

1 경제민주화 기본법

-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조직, 사회연대조직 등을 포함한 산업조직 다양성 제고
-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환경적 책임성 강화

2 지방발전법 제정

- 지방정부에게 경제와 복지의 정책기획과 실행권한을 부여

3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의 형태에 대한 선택도 지방에 맡기는 권한 부여

4 정부조직법 개정

- 관련한 정부조직의 정비

5 국가봉사법 제정

- 미국의 AmeriCorp, PeaceCorp와 같은 정책 실시

4. 행복한 나라의 경제사회전략

3 행복한 나라의 10대 법률 제정/개정

6 세법개정

- 개인 혹은 기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7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초 정비

8 시민공익위원회법 제정

- 시민조직의 투명성 강화

9 공익근무자 기본소득보장법 제정

- 공익근무자의 공익적 영향력에 대한 보상

10 국민총행복 증진법 제정

- 국민총행복 관련 통계정비, 정책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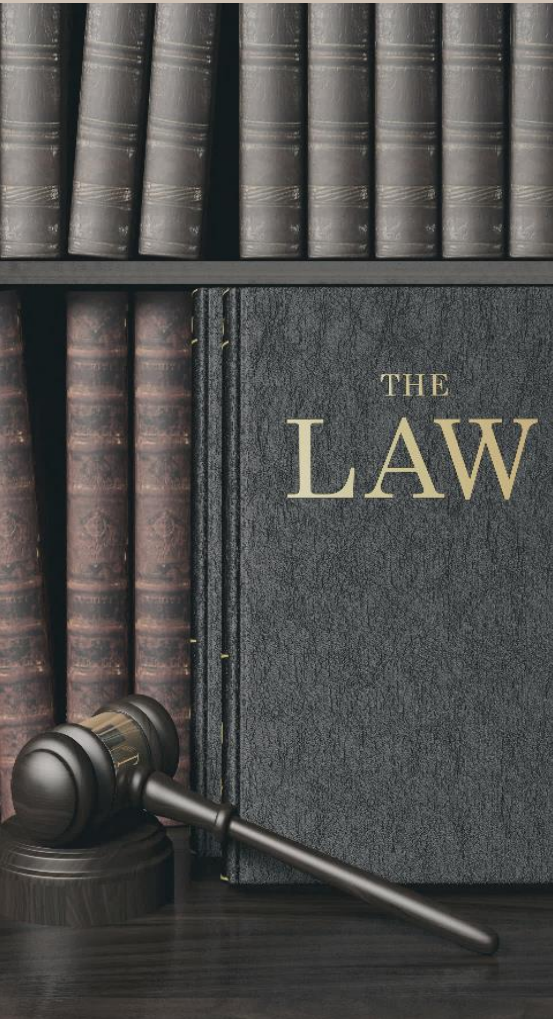
①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인식

5.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인식

1 사회연대경제의 개념

■ 사회연대경제의 규정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법」(law of social economy, 2011.03.29)



- 1 자본보다 인간 및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함
- 2 경제활동으로 얻은 결과는 주로 남녀 조합원 혹은 단체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됨
- 3 단체의 내부적 연대는 물론 사회와의 연대를 촉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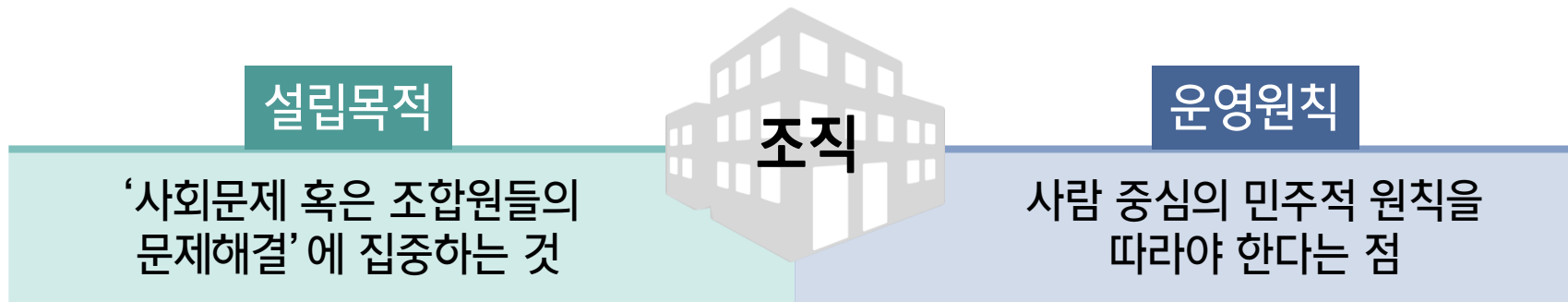
사회적 연대

지역 발전, 남녀의 기회 평등, 사회적 결속,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통합,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 창출, 개인 및 가족의 삶과 노동의 조화, 지속가능성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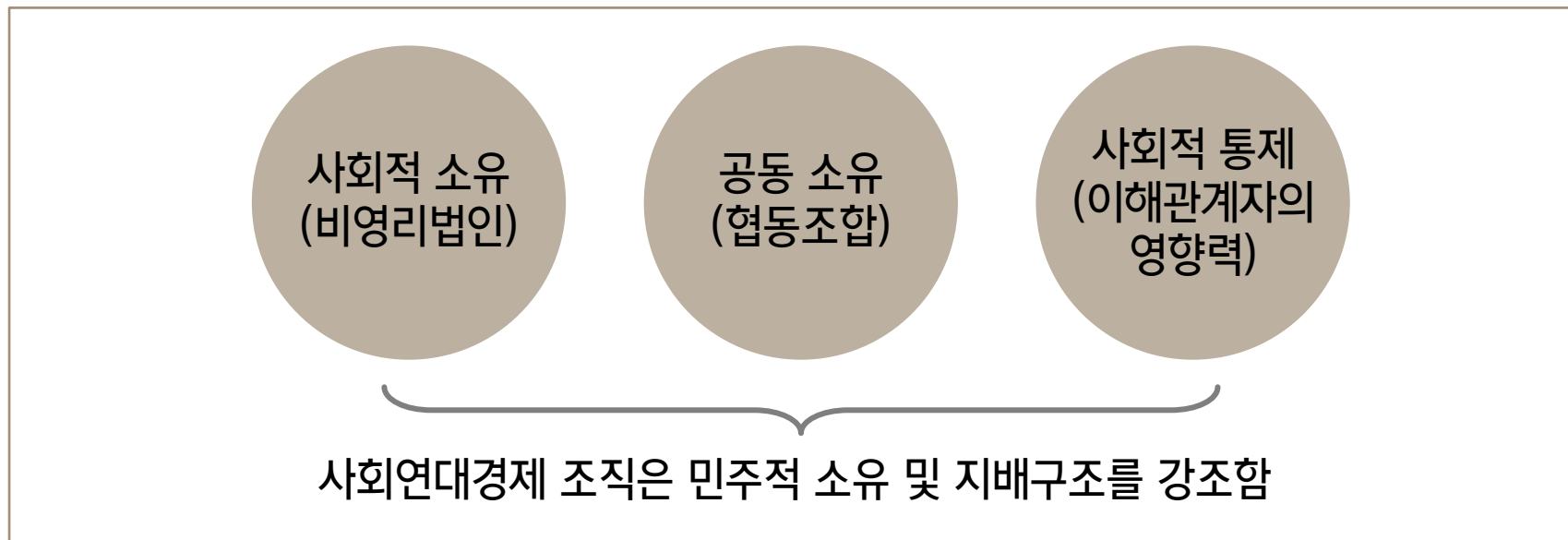
- 4 공공기관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함

5.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인식

1 사회연대경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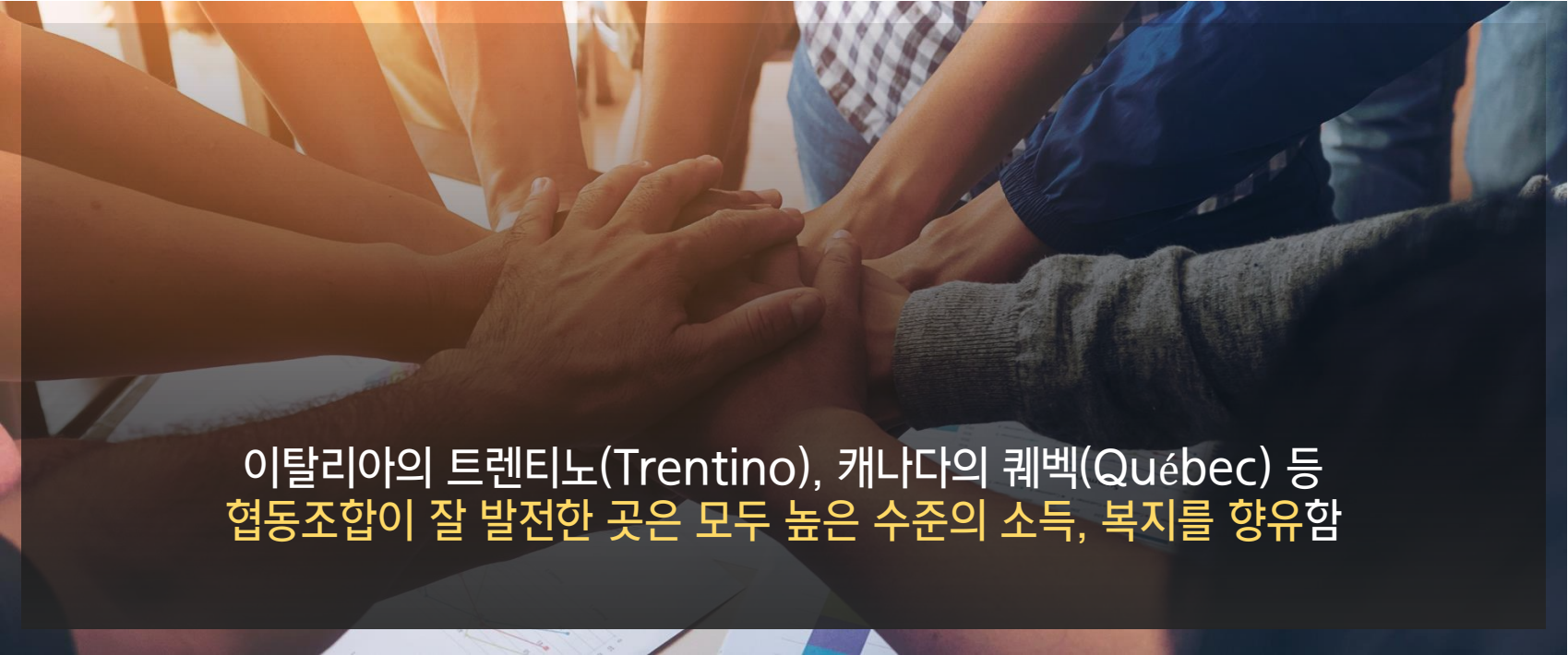
이 두 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모두 갖추는 것은 어려움



5.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인식

2 사회적경제의 효과

사회적경제의 효과는 명확함



이탈리아의 트렌티노(Trentino), 캐나다의 퀘벡(Québec) 등
협동조합이 잘 발전한 곳은 모두 높은 수준의 소득, 복지를 향유함

3 국제기구의 지지



UN(국제연합)

2009년 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 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 협동조합은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 때문에, 경기가 나쁜 어려운 시절에도, 더욱 생존력과 회복력이 강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 성공이 수많은 가족과 지역공동체가 가난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다. ”

3 국제기구의 지지



유럽의회

2009년 2월 19일,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48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함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결의

제1조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창출과 사회연대를 결합하여,
질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적 · 경제적 ·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며,
사회자본을 축적시키고, 활동적인 시민 역량을 증진시킨다.
또한 민주적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사회적 · 환경적 · 기술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5.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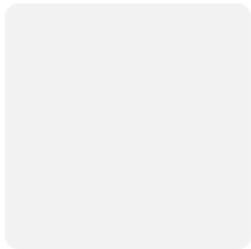
3 국제기구의 지지

-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의 권고문 모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 강조
-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권고(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정의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
- 비공식경제의 공식화 전환에 관한 권고(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 평화와 회복력을 위한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권고(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Peace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 2017)
- 일의 미래를 위한 세계노동기구 100주년 선언(ILO Centenary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Work, 2019)
- 코로나19로부터의 사람 중심성 회복을 위한 ILO의 글로벌 행동 촉구(global call to action for a human-centred recovery from the COVID-19 crisis, 2021)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문(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2022)

5. 사회연대경제의 국제적 인식

3 국제기구의 지지

- 2023년 3월 27일 UN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 채택.
- UN 회원국들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 세계은행과 같은 개발 은행은 이를 지원하며,
- UN 사무총장은 UN 산하기관들 협업의 태크스 포스팀을 만들어 향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세상은 이런데 우리사회는 일부 거꾸로 감.
- 심지어 사회연대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주의경제라면, 사회연대경제를 강조하는 영국 보수당은 사회주의 정당임.



①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쪽방이라는 공간

▶ 동자동 쪽방 건물 내부 모습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스스로 만든 자조금융

2011년 동자동 주민들은 스스로 모은 자금을 싼 이자로 서로 빌려주는 금융협동조합(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을 결성함

▶ 운영

대출 자격

- 소액대출(10만 원 미만)은 3개월 이상 꾸준히 출자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가능함

대출 한도

- 6개월 20구좌(10만 원) 이상 출자한 회원은 최대 5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음
- 긴급자금은 20만 원 이내에서 대출됨
- 출자금이 많은 사람은 출자금의 70% 내에서 대출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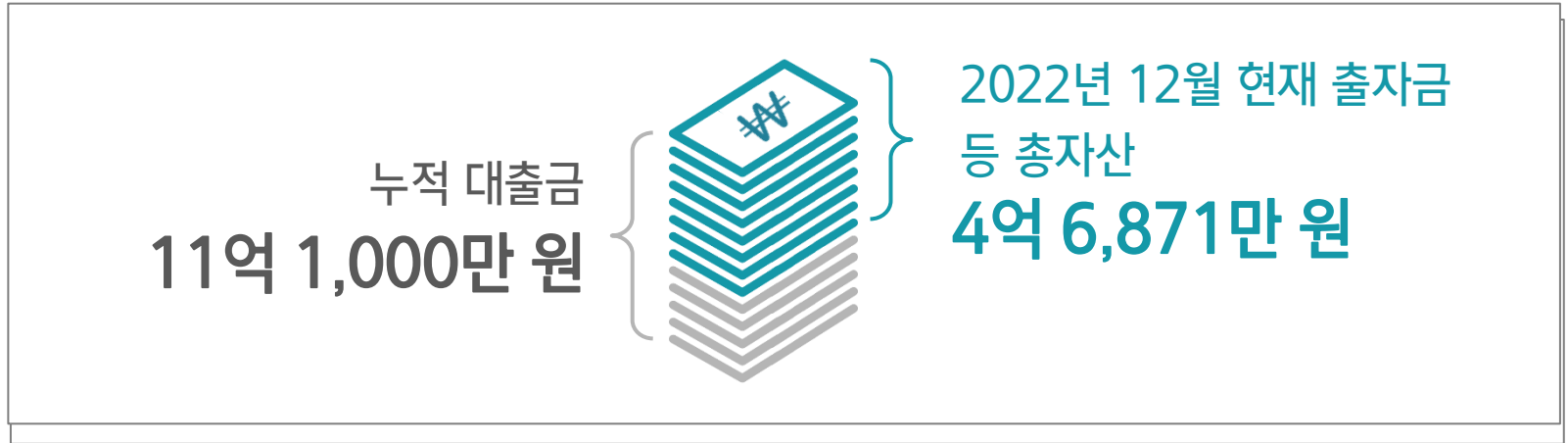
이자율

- 모든 대출의 이자율은 2%이며, 연체이자율 또한 4%임
➔ 대부분 신용불량자인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됨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스스로 만든 자조금융
 - ▶ 출자/자산과 대출



- 2022년 월평균 118명이 출자하며, 100만 원 이상 출자한 사람은 80명임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스스로 만든 자조금융

▶ 대출

대출 건수

- 2019년에 총 532건(1억 4,564만 원)이 대출됨
- ✓ 10만 원 이하 : 51%
- ✓ 50만 원 이상 : 8%

대출 사유

- 생활 안정(생활비 부족, 실직, 담뱃값 등) : 53%
- 가족 · 지인 관련(결혼, 돌, 장례 등) : 18%
- 의료비(검사비 및 치과 치료비 등)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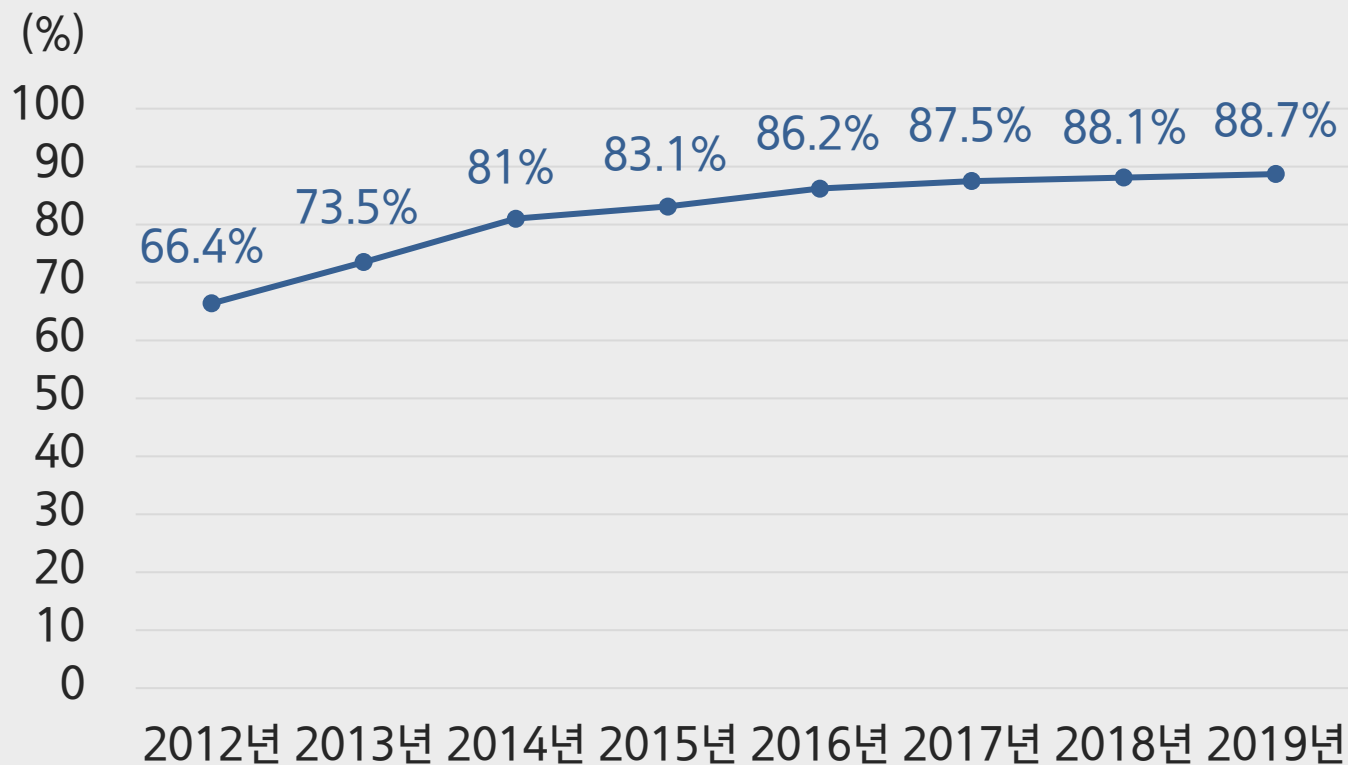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스스로 만든 자조금융

▶ 대출 상환율

-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대출 상환율이 극히 높다는 것임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스스로 만든 자조금융

▶ 2019년 활동 상황



회의

- 정기총회(3월) 회원 415명 중 175명 참석 (140명 출석 + 위임 31명)
- 정기이사회 총 26회, 임·위원 전체회의 9회 개최



공동행사

- 어버이날 행사(400인분 점심 대접)
- 추석 행사(300인분 점심 대접 + 민속놀이)
- 부탄가스 공동구매(305박스)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스스로 만든 자조금융

▶ 2019년 활동 상황



- 마을 대청소(20회)
- 장례(17회의 장례 주재/도움)
- 병문안(77회)
- 의료비 지원(10명, 총 349만 7,200원)
- 기타 각종 연대사업 참석(제정구 선생 20주기 추모 미사 등)



- 신규회원 교육(총 9회)
- 주민지도자 과정 교육(2회)
- 임원 · 위원 역량강화 교육(2회)
- 소식지 제작 및 배포
- 각종 홍보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가난극복의 힘은 ‘지원’ 이 아니라 ‘자활’ 에서 나온다!

동자동에서 활동하는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선동수 간사



“

가난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저기서 쏟아 붓는 물량공세를 통해 닦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가난한 주민들이 함께 협동하여 스스로 돕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품을 앞세운 외부의 선의는
오히려 주민을 비인간화, 대상화시켜 힘든 여건에서도
주민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저의 말을 동자동 주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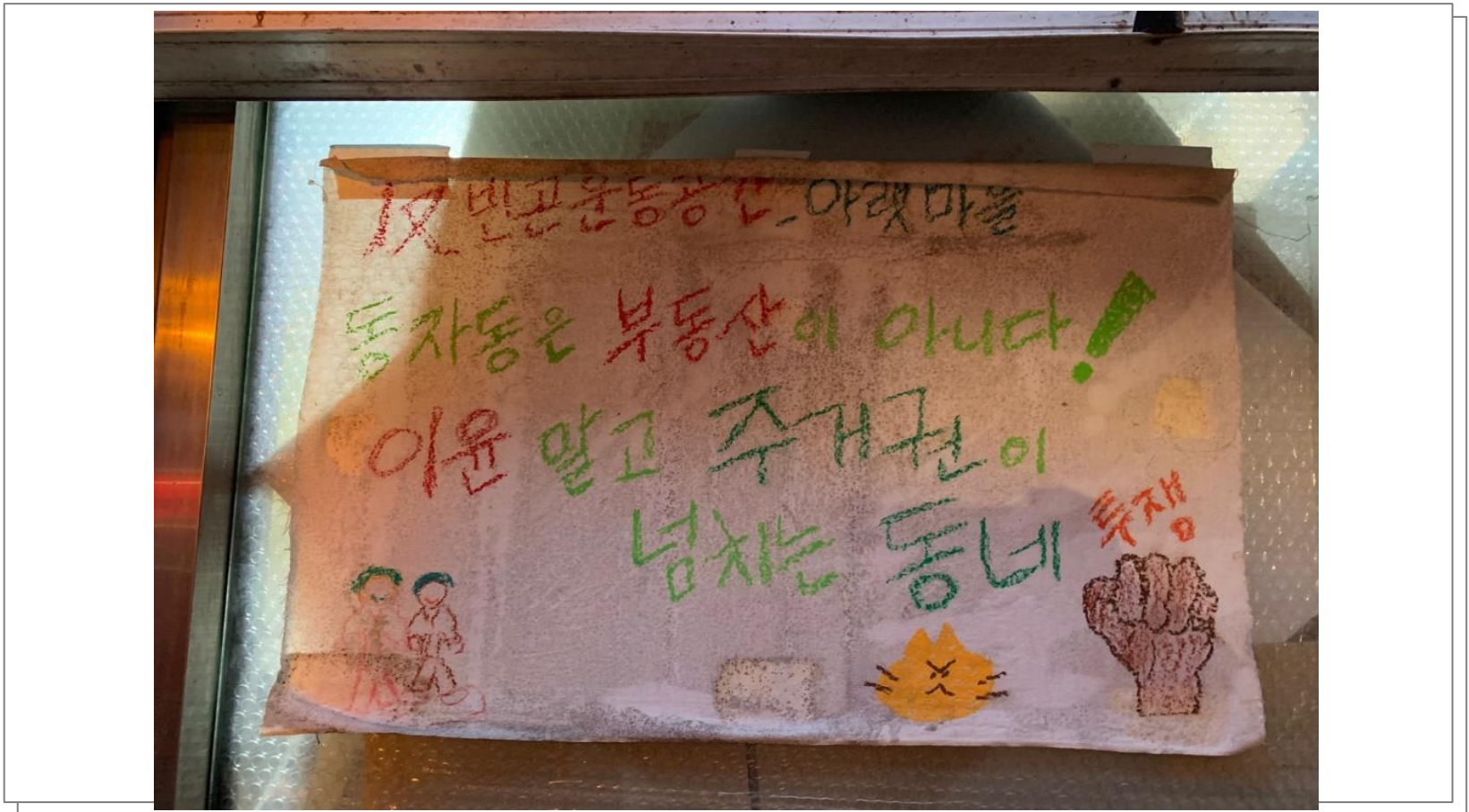
빈민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음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따뜻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동자동의 공공, 민간개발 관련 갈등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따뜻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동자동 사랑방에서의 간담회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1 동자동 사랑방과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

■ 따뜻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동자동 사랑방 앞에서 학생들과 주민들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2 중증 발달장애인 250명을 고용한 베어베터

- 장해인이 중심이 되는 회사

회사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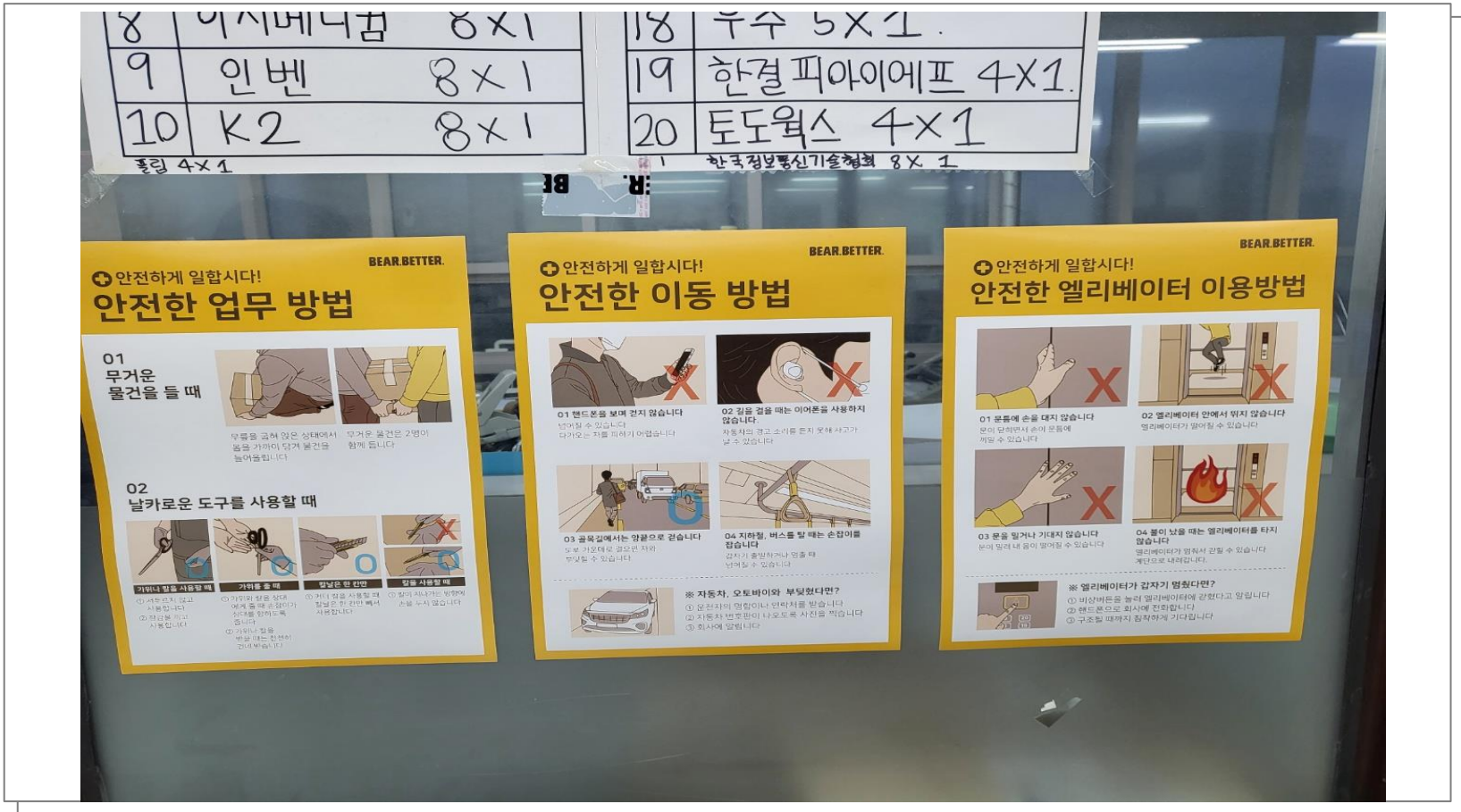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2 중증 발달장애인 250명을 고용한 베어베터

기업 곳곳이 혁신의 결과

장애인이 일하기 위한 각종 교육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2 중증 발달장애인 250명을 고용한 베어베터

-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은 확산도 빠르다

베어베터에서 학생들과 함께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3 홍성군 홍동면/장곡면의 사회연대경제

- 주민의 힘으로 일군 밝맑 도서관

밝맑 도서관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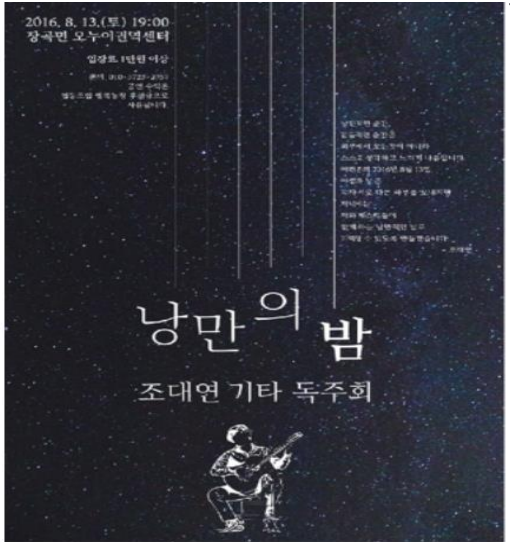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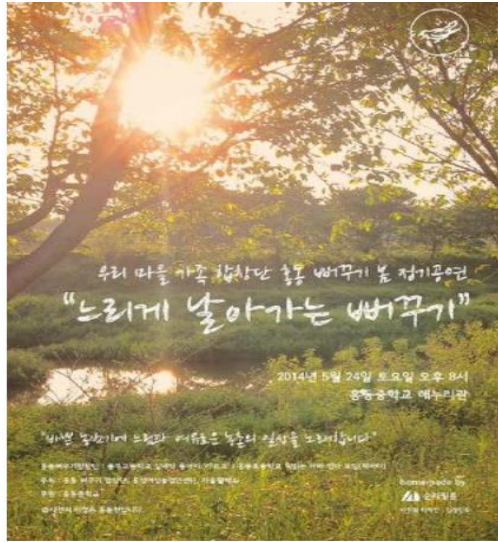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3 흥성군 흥동면/장곡면의 사회연대경제

다양한 문화 및 교육 행사

문화 행사의 모습들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3 홍성군 흥동면/장곡면의 사회연대경제

■ 다양한 문화 및 교육행사

장곡면 오누이센터에 붙어있는 행사포스터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3 홍성군 홍동면/장곡면의 사회연대경제

■ 홍동의 생협들

풀무학교 생협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4 사회연대경제의 모습들



의료복지 공동체



장애인 사회적기업



친환경 먹거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동구밭

아이쿱 생협



한국에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 행복한 사회가 되려는 여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있다.

💡 사회연대경제는 시민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6. 우울한 시대의 유쾌한 반란

5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

- 사회연대경제는 모두가 주체가 되는 나라의 핵심조직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그냥 생기지 않았다.

동자동에는 염동철과 선동수 활동가가, 베어베터에는 김정호와 이진희가 대표가, 흥성에는 이찬갑, 홍순명, 정민철 등이 각자의 영혼을 갈아 넣어 혼신을 다해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성과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회연대경제의 선배/동료/후배가 있다. 시대는 여전히 우울하나, 이들의 유쾌한 반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일부 엘리트, 혹은 잘 나가는 재벌기업의 노력으로 나라가 잘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외눈박이 사고방식이다. 이 땅에는 재벌과 엘리트만 사는 것이 아니다. 청년 백수,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까지 수많은 사람이 산다. 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구상하라.

그것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이며, 사회연대경제는 그 길의 한가운데 있다.